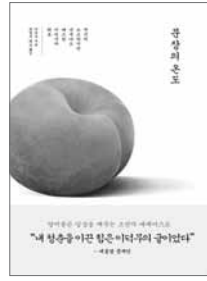


조선 실학자가 문장에 옮긴 삶의 따스함

문장의 온도

이덕무 지음·한정주 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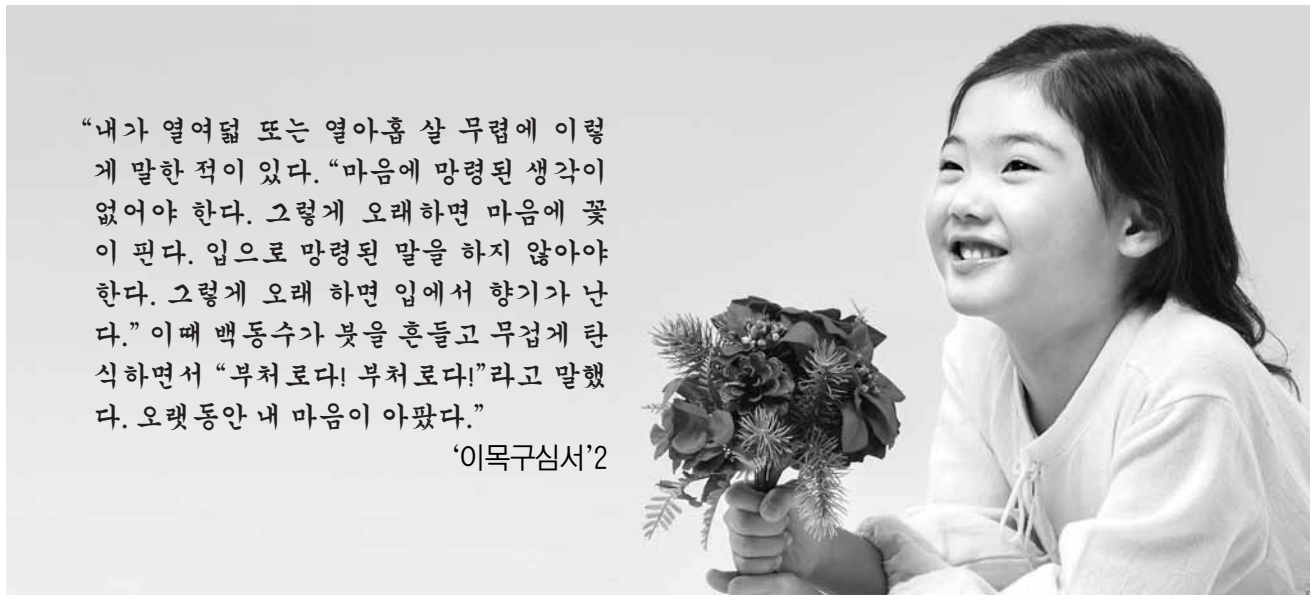


“말뚝구리는 스스로 말뚝 굴리기를 좋아할 뿐 용의 여의주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옹 또한 여의주를 자랑하거나 뽐내면서 말뚝구리의 말뚝을 비웃지 않는다.”(‘선굴당농소’ 중)

매마르고 쓸쓸한 일상을 위로하는 문장이 있다. 화려하거나 세련된 문장이 아니라도 몸과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글 말이다.

북학과 실학자 이덕무는 일상 속에 숨은 아름다움을 문장으로 풀어낸 ‘에세이스트’다. 가장 평범한 것들에서 깊이 울린 아름다운 문장은 오래도록 음미하고 싶을 만큼 여운을 준다. 가난한 서얼 출신으로 정규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으나 스스로 학문을 갈고 닦아 당대의 실학자들과 교류하며 18세기 조선의 문예부흥을 이끌었다.

‘간서치’(책 바보)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애서기였지만, 그는 치열한 생활인이기도 했다. 탁상공문에 휩쓸리지 않고 서민들의 실제 삶에 관심을 가졌던 학자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젊은 시절 이덕무를 ‘몰도델’로 삼았다고 고백한 적 있다. 흔히 유명인사들이 역사 인물로 존경하



“내가 열여덟 또는 열아홉 살 무렵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마음에 망령된 생각이 없어야 한다. 그렇게 오래하면 마음에 꽃이 핀다. 입으로 망령된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오래 하면 입에서 향기가 난다.” 이때 백동수가 붓을 흔들고 무겁게 탄식하면서 “부처로다! 부처로다!”라고 말했다. 오랫동안 내 마음이 아팠다.”

‘이목구심서’2

는 세종대왕이나 정조 등에 비하면 이덕무는 서얼 출신의 실학자에 지나지 않는 데 말이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덕무 마니아’인 고전연구가이자 고전 역사 연구회 뇌룡재(雷龍齋) 대표인 한정주 씨가 엮은 ‘문장의 온도’를 읽고 나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한 고전 연구가는 이덕무의 에세이 ‘이목구심서’와 ‘선굴당농소’에 있는 아름다운 문장들을 뽑아 책으로 묶었다.

소소하지만 따스한 온기가 전해지는 책은 사소한 아름다움도 놓치지 않은 이덕무의 생각과 애정이 담겨 있다. 무엇보다 이덕무는 어떤 관념보다 삶이 제일 먼저라는 확고한 철학을 견지했다. 책 곳곳에서 이웃노인이나 동네 아이들과 어울

리며 생활했던 장면이나, 아침저녁의 자연 풍경에 대한 묘사를 볼 수 있다.

책을 읽다보면 이덕무의 문장에 절로 감탄하게 된다. 특별하게 정해진 형식이나 기술이 없지만 오래도록 여운이 남는다. 그것은 오직 “삶의 다양한 온도를 문장에 그대로 드러내는 것”과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중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른 사람을 따라 하지 말고 과장되지도 말고,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좋은 문장을 쓰고 일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비법이라는 뜻이다. 정조는 이덕무의 문장을 가리켜 “우아하고 훌륭하다. 그의 재주와 식견을 잇을 수 없다.”고 평했다.

한편 책에는 문장 자체가 주는 울림 외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올바른 삶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문장도 만날 수 있다. 이덕무가 말하는 지혜를 한번쯤 곱씹어도 좋을 듯하다.

“내가 열여덟 또는 열아홉 살 무렵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마음에 망령된 생각이 없어야 한다. 그렇게 오래하면 마음에 꽃이 핀다. 입으로 망령된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오래 하면 입에서 향기가 난다.” 이때 백동수가 붓을 흔들고 무겁게 탄식하면서 “부처로다! 부처로다!”라고 말했다. 오랫동안 내 마음이 아팠다.”(‘이목구심서’2)

〈다산북스·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작게 생각해야 그려지는 성공의 큰 그림

씹크 스몰

오웬인 서비스·로리 캘러거 지음

김지연 옮김



최근 경제학 분야의 최고 화두는 ‘넛지’ 이론이다. 행동경제학자인 시카고대학교 리처드 탈러 교수가 201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고 영국과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넛지 이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넛지 이론은 ‘타인의 선택을 의도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라는 뜻을 지닌다.

당대의 혁신적인 경제학 이론인 넛지 이론을 인간의 삶과 연관지어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안내해주는 책이 출간됐다. 세필드대학교 초빙교수인 오웬인 서비스와 캠브리지 대학에서 에이즈와 행동변

화와 관련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로리 캘러거가 펴낸 ‘씹크스몰’은 생활 속 넛지 활용법을 보여준다. 책은 출간 즉시 영국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경제, 자기관리 분야 베스트셀러 킨들에디션 3개 부문 1위에 올랐다.

저자들은 넛지 이론을 독자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셀프 넛지’ 방법을 알려준다. 여기에는 ‘결정, 계획, 약속의 조건, 보상, 목표, 피드백, 노력’ 등 7가지 방법이 체계적인 단계로 구성돼 있다. 저자들은 7단계의 방법과 함께 ‘작게 생각하라’고 당부한다. 역설적인 제안인 셈이다.

또한 책에는 최근의 행동과학 자료들을 바탕으로 목표를 이루는 방법 등이 소개돼 있다. 일대면 느린 체계를 현명하게 사용하면서 가장 필요한 순간에 빠른 체

계를 적용시킬 수 있는 방식 등을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성공, 큰 성과를 성취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크게 생각하라’는 말도 많이 들린다. 하지만 사실 ‘작고 구체적인’ 과정이 없으면 목표를 이루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작게 생각하고 작은 것부터 계획하는 것이 제대로 생각하고 성과를 내는 최고의 길이다.

저자들은 “‘작게 생각하기’의 틀은 ‘당신의 행동 비계의 바탕이 되어줄 목표 설정과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서 시작한다. 그다음에는 당신이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통해 기쁨을 세우며 건물을 지을 방법을 소개할 것”이라며 “이 방법은 약속을 하고, 적절한 보상을 정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자신에게 도움되는 피드백을 받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별출·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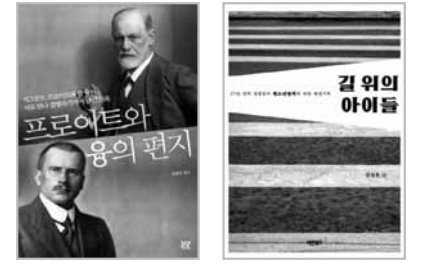
새로 나온 책

▲당신의 아주 먼 섬=정미경의 마지막 장편소설 ‘당신의 아주 먼 섬’은 남도의 어느 작은 섬에 얽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소설에는 오래 전 자신이 타고 자란 섬을 떠나 예술가로서 자신의 성공만을 좇는 연수와 고등학생 딸 이우가 등장한다. 다채로운 양상들을 세밀하게 펼쳐보이는 일에 일가견이 있는 작가답게, 정미경은 섬을 떠났으나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드라마를 세심하고 따뜻하게 그려낸다.

〈문학동네·1만2000원〉

▲부의 추월차선 완결판=30대에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사업가이며 발명가인 엠제이 드마코. 그가 젊어서 부자가 되는 길을 공개하며 ‘추월차선’이라는 말을 일반 명사로 만들 만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부의 추월차선’의 완결판 ‘언스크립티드’. 아직 추월차선에 진입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펴낸 책에서 저자는 풍요, 자유, 행복을 일깨울 청사진을 제공하고 극소수만이 꿈꾸는 인생을 자유롭게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토트·1만9800원〉

▲프로이트와 융의 편지=지그문트 프로이트와 칼 융이 서로 만나 결별하기까지 남긴 분석적 기록 ‘프로이트와 융의 편지’. 심리학 역사상 가장 두드러진 인물인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칼 융이 주고받은 편지를 모았다. 1906년부터 1914년까지 두 사람 사이에 오간 편지는 대략 360통 정도인데, 이 중 200통을 요약 정리했다. 프로이트와 융은 서신을 통해 이론이나 심리 치료 방



법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무의식과 종교적 경험, 초심리학적 경험, 개인 가정사까지 폭넓게 대화한다. 〈부글·1만9000원〉

▲길 위의 아이들=이 책의 저자 김성호는 현직 경찰관이다. 저자는 27년 동안 경찰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사건·사고를 겪고 다양한 부모와 청소년들을 만났다. 저자는 이 책에서 왜 청소년 범죄가 일어나는지, 청소년 범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고 위태로운 ‘길 위의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안전한 지대로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해 처벌 외의 여러 방면으로 고민한 결과들을 자신의 경험담과 함께 풀어냈다.

〈바른북스·1만5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노랑 크레용의 이야기=혼자 놀기를 좋아하는 아이, 친구가 없으면 안 되는 아이, 친구랑도 잘 놀고 혼자서도 잘 노는 아이 등 아이의 성향은 가지각색이다. 그림이 온통 노랑이면 안 되는 걸까? 여러 색이 칠해졌다고 그 그림을 만진 게 되는 걸까? 현대사회는 서로간의 소통이 중요한 사회다. 이 책은 혼자 놀기만을 같이 놀기만을 고집하는 아이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는 책이다.

〈봄봄출판사·1만3000원〉

▲아기나무와 바람=‘아기나무와 바람’은 떠나고 싶지만 뿌리 박혀있고, 머물고 싶지만 떠돌 수밖에 없는 아기나무와 바람이 나누는 우정과 희망의 대화다. 문학, 철학, 사회학 등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책을 써온 작가가 자신의 아이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쓴 수십 편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골라 만화가 배민기와 함께 엮어낸 철학 동화다.자연과 우주, 세계와 삶에 대한 신비롭고 커다란 질문을 제시한다.

〈호밀밭·8000원〉

▲마음도 복제가 되나요?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부터 우리 주변의



생생한 현실을 담은 동화까지, 속도감 있고 거침없는 서술로 묵직한 주제 의식을 전달하는 동화 여덟 편을 엮었다. 작가 특유의 건강한 유머 또한 읽는 재미를 더한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씩씩하게 성장하는 작품 속 아이들을 만나며 독자들은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될 것이다. 〈창비·9800원〉

리치공인중개사

부동산 매매

- 곡성군 옥과면 설옥리 593외 6필지
- 펜션, 체험장, 캠핑장, 전원주택, 수련원 옆 미술관, 커피숍, 별장 가능 1,800㎡(5,000평)
- 설산바위와 설산저수지(가운데 토지)
- 대형차량 출입가능, 조망 좋은 남향

● 매매가 8억원

매매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쌍옥리 608-12 4개필지, 893㎡(전), 단독주택 가능 전원생활 하실분, 화순CC 옆, 남향 바로 앞 물이 흐름

● 매매가 6천만원

부동산 매매

- 함평군 월야면 용월리 산26-1외 2필지
- 전원주택, 편백숲, 택지분양, 캠핑장·텐트촌, 체험장 가능 30,000㎡(9,000평)
- 대형차량 출입가능
- 달맞이 공원에서 50m

● 매매가 7억원

주인 직거래 010-4602-9264 / 010-4013-2880